

MB 공약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없이 나로우주센터 실속없다

경남·전북 조성 땀 물류비 증가 등 예산 낭비

11일 우주 강국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층 나로 우주센터 준공식을 계기로 나로 우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남 사천이 이미 관련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뛰어들었다 뒤늦게 경남 진주와 전북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나로 우주센터가 위성 등의 발사만을 전담하는 하드웨어(hard ware)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나로 우주센터 일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은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나로 우주센터 준공을 계기로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고층군 일대 306만7천㎡ 부지에 1조3천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주산업 R&D집적화 ▲항공관련 특화단

지 구축 ▲우주항공 테마파크 조성 ▲교육훈련시설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나로 우주센터 일대를 우주산업 R&D센터와 첨단 우주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 우주과학 교육·체험장 건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구상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남 사천과 진주, 전북 등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산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어 항공우주산업이 자칫 분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이 분산될 경우 그동안 정부가 공들여 세운 나로 우주센터가 소프트 웨어(Soft WARE) 기능을 갖추지 못한 위성발사 기능만을 맡게 되는 하드웨어 역할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 사천의 경우 이미 우주항공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선도기업인 한국 항공우주산업(주) 입주와 항공

산업 집적단지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접경지인 서부 경남지역 520만㎡ 부지에 항공 우주 관련 국가 산업단지 건설이 추진중에 있으며, 전북도 새만금 산단에 우주항공산업단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다.

만일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나로 우주센터가 아닌 경남이나 전북에 조성될 경우 우주 발사체 및 위성 운반 등의 물류 비용 증가 등으로 국가적 예산 손실도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우주항공의 첫발을 내딛는 고층 나로 우주센터 일대를 우주산업 집적화 단지로 구축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효과적인 우주항공산업 기술개발과 능력,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분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나로 우주센터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로에서 우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고층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에서 우주소년단과 함께 기념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나로우주센터=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10년내 7대 우주강국”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추대통령 강조

마침내 ‘우주 강국 코리아’를 향한 힘찬 첫걸음이 시작됐다.

우주를 향한 대역사의 시발점이 될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이 11일 오후 2시 고층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악대의 힘찬 공연과 함께 시작된 준공식은 나로우주센터 준공 경과보고와 우주 강국을 향한 한국의 미래를 담은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치사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힘으로 우주시대를 열어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력의 총아인 우주개발은 우리 어우러진 성과로, 이 같은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싣고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기

념사에서 “우주가 우리 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나로호가 국민의 희망을 싣고 날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주소년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7월 30일로 예정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1)’의 성공적인 발사와 우주개발 10대 강국 진입을 기원하며 모형 로켓 10대를 하늘로 쏘아올렸다.

식후 행사로는 한국 최초 우주인이 이소연 박사가 ‘대한민국의 꿈 그리고 우주’를 주제로 강연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는 나로우주센터 건립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허반마을 주민 30여명이 6년여만에 고향을 다시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준공한 나로우주센터는 부지 규모 510만㎡, 총 사업비 3천125억 원, 발사체와 위성개발 5천24억원, 사업기간만 8년이 소요됐으며 전세계에서 13번째로 건립됐다.

한편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에 탑재될 과학기술위성 2호가 12일 나로우주센터로 운송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흥=주각중·강필성기자 kps@

“민주주의 역행 안된다

李대통령 큰 결단 내려야

DJ 6·15 특별강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정국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11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 특별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50년 동안 피를 흘려서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위태위태하다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러한 김 전 대통령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느냐”고 반문한 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여야 정권 교체로 인해 국민의 정부가 나왔다.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 밑에서 민주주의의 정치는 계속 됐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만일 이 대통령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직언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마음으로 부터 편해진 심정으로 말씀 드린다”며 “(국민들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확고한 민주국가,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협력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자”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향 내년 5·18 30주기 기념 말러 교향곡 2번 연주

‘부활’ 서울하늘 울려 퍼진다

시민합창단도 구성키로

5·18광주민중항쟁 30주기가 되는 2010년 5월, 서울 하늘에 말러 교향곡 ‘부활’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광주시립교향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은 2010년 5·18 30주기 기념 음악회를 광주와 서울에서 열 계획이다. 공연 레퍼토리는 연주시간이 85분에 이르는 구스타프 말

러의 교향곡 2번 ‘부활’(전 5악장)이다. 말러의 대표작인 ‘부활’은 오케스트라 이외에도 최소 300명 이상의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서는 대규모 곡.

광주시향은 광주시립합창단과 대학 합창단, 아마추어 합창단, 성가대 등이 모여 ‘광주시민합창단’을 구성, 연주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있는 공연을 구상하고 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지

원자의 경우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합창단 규모는 300명에서 500명까지 고려중이다.

구 지휘자는 “5·18은 광주만이 아닌, 우리 나라 전체의 역사적 사건이므로 광주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연주를 하면 좋을 듯 해서 서울 연주회도 기획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향은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에 대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휴대 패키지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9

월 20억개 돌파
위에는 역시 월입니다

20억개의 월, 20억명의 사람...
위에는 역시 월이라 믿어주시는 여러분께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월
월리코박터 프로젝트
www.wonil.co.kr ☎ 1577-3651